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100-250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산4-5

TEL.(02)726-1010(대), 1176 FAX.(02)726-1292

연구원 홈페이지(www.sdi.re.kr)를 통해서도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 도시동향

10

2000년 10월 9일

HEADLINE NEWS

6차 세계대도시 시장회의, 「북경 선언」 채택 (북경)

제6차 세계대도시 시장회의가 9월 28일 高建 서울시장을 비롯, 세계 33개 대도시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북경에서 개최, '21세기를 맞아 세계 대도시간 협력 및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도록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북경 선언」을 채택했다.

이날 참석한 시장들은 「북경선언」을 통해 '그 동안 도시가 세계 번영에 큰 공헌을 해 왔으나 자원 고갈, 환경 파괴, 급속한 인구 증가 및 도시공동체간 격차 심화 등의 문제점도 잉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의 글로벌화와 도시기능의 국제화가 두드러짐으로써 도시의 상호의존경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면서, '도시문제의 해결과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배경 및 발전수준이 각기 다른 도시간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디지털 사회의 출현은 도시와 시민 사이를 잇고 기술과 정책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정보자원을 관리하고 도시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함께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人民日報, 9. 30)

HIGHLIGHTS

도시관리

1 제3의 국제공항 건설계획 추진 (파리)

도시환경

2 불법투기 '자동차타이어' 수거시민에게 상금 지급 (필라델피아)

3 都廳 납품시 디젤차 출입금지 (동경)

4 都廳 인근에 천연가스 專用 충전소 설치 (동경)

도시교통

5 철도사고 예방 위해 「복층식 고가철도」 건설 (하노이)

6 교통기관 통폐합해 「대중교통운영공사」 설립 (런던)

7 교통대란 막기 위해 「연료위기대책위원회」 구성 (런던)

8 도심진입차량 요금 징수 추진 (동경)

9 도시고속버스 운행속도 '고속화' (로스앤젤레스)

사회복지

10 장애인 및 노인용 휠체어승강기 설치 택시 '도입 (동경)

행.재정

11 中小제조업체 공동지원사업 전개 (동경 / 오사카)

12 레저·문화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의견 수렴 (홍콩)

1 제3의 국제공항 건설계획 추진 (파리)

프랑스 정부는 파리지역에 제3의 국제공항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 계획은 애초 수용가능한 승객 인원이 5천5백만명인 「샤를 드골」 공항이 포화 상태에 다다름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97년 처음 추진되었으나, 건설예정지 주민 및 자치단체장들의 반대에 부닥쳐 실현되지 못했었다. 그런데 지난 7월 발생한 콩코드기 추락사고를 계기로 새로운 국제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었으며, 급기야 프랑스 주택·교통·시설부 장관이 파리지역에 제3의 국제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게 되었다. 새 공항은 주민 및 자치단체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파리 북동쪽에 건설될 예정이며, 공사기간은 15년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Le Monde, 10. 2)

2 불법투기 '자동차타이어' 수거시민에게 상금 지급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도로과는 불법투기된 자동차타이어를 시민들이 수거해오면 상금을 지급하는 「Tire Round-Up Program」을 시행하고 있다. '95년부터 시행된 이 프로그램은 불법투기 타이어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어,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는 토요일마다 타이어 수거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 행사에는 환경단체 및 지역사회단체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이 불법투기 타이어를 수거, 지정된 재활용시설에 갖다주면, 타이어 1개당 50센트씩 최고 500달러까지 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 행사는 쓰레기문제 해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newweb.phila.gov)

3 都廳 납품시 디젤차 출입금지 (동경)

東京都는「디젤차 NO 작전」의 일환으로 '디젤차를 이용하지 않는 납품 시행 요령'을 9월 25일 발표했다. 이는 都廳에 납품할 때 디젤차를 이용하지 말 것을 납품업자에게 요구하는 내용으로,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디젤차 '출입금지' 지역은 都 제1청사 및 제2청사이며, 대상자는 都의 물품구입 등에 공개입찰로 참여하는 업체이고, 대상차량은 都와의 계약이행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차량으로, 여기에는 납품업체의 위탁을 받은 차량도 포함된다.

올 9월부터 2001년 3월까지 홍보기간으로 정했으며, 1차 시행기간은 2001년 4월~2002년 3월로 정했다. 1차 시행기간 중에 납품업자는 납품차량에 대한 보고서를 납품시 제출해야 하며, 都는 都廳 주차장을 대상으로 3개월에 1회 정도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02년 4월부터는 계약서에 '납품시 디젤차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이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都는 디젤차를 계속해서 이용하는 납품업자에 대해 일정기간의 거래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www.kankyo.metro.tokyo.jp/dno/press/kotowari.htm)

4 都廳 인근에 천연가스 專用 충전소 설치 (동경)

'디젤차 대책'을 추진중인 東京都는 都廳 인접지역에 천연가스 충전소를 연내에 설치한다. 都는 이를 통해 都廳 납품차량이나 都廳 부근을 운행하는 업무차량에 연료를 제공함으로써 저공해 천연가스차량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都는 금년 중 都有地에 5개의 충전소를 설치한 후 '(주)동경가스'에 임대, 운영을 맡길 계획이다. 충전소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은 충전소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주)동경가스'의 천연가스관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들 충전소가 설치되면 都內 충전소는 26개가 된다.

(日本經濟新聞, 9. 26)

5 철도사고 예방 위해「복층식 고가철도」건설 (하노이)

베트남 철도청(Vietnam Railways)은 하노이市에 새로운「복층식(複層式) 고가철도」건설사업을 추진중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철도청은 앞으로 7억~10억 달러의 공사비를 들여 하노이 定都 1000주년인 2010년에「복층식 고가철도」를 완공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철도의 평면교차로 인해 발생하는 철도사고를 예방하고 현재 노선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노면 위 8~15m 지점에 철근 콘크리트 박스빔과 방음벽을 설치, 2대의 열차가 시속 60~80km로 동시 운행할 수 있도록 건설될 예정이다.

(www.transit-center.com/News/articles/nws092500.htm)

6 교통기관 통폐합해「대중교통운영공사」설립 (런던)

런던市는 7월 3일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통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市가 운영해오던 지하철, 버스, 빅토리아코치스테이션, 전차 및 경전철, 택시, 하상교통(河上交通) 운영과 도로관리관련 교통기관을 통폐합하여「대중교통운영공사(TfL: Transport for London)」를 발족시켰다. 대중교통 운영체계가 이처럼 단순화됨에 따라 시민들은 1개의 교통카드로 다양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市長이 조직을 직접 관장할 수 있도록 이 기구의 평의회 의장을 맡았으며, 평의회 위원은 14명으로 구성되었다. 향후「대중교통운영공사」는 市長의 교통전략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자치구 및 철도청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버스·경전철·지하철·택시·하상교통 운영, 주요 도로망·가로등 관리, 장애인대상 콜택시 및 문전(門前) 서비스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www.transportforlondon.gov.uk/abt_tfl.shtml) (www.london.gov.uk/gla/transport.htm)

7 교통대란 막기 위해「연료위기대책위원회」구성 (런던)

켄 리빙스톤 런던市長은 9월 12일 '석유회사들이 비축연료를 방출하지 않음으로써 석유 부족과 가격상승 현상을 야기, 폭리를 취하고 있다'면서 연료부족으로 인한 교통대란을 막기 위해「연료위기대책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매일 2회 이상 회의가 열리며, 회의결과는 시장에게 즉각 보고되고「대중교통운영공사」대표이사에게도 통보된다. 아울러 경찰, 병원 응급실, 교통관련기관과의 직통연락체계도 구축했다.

한편, 지난 9월 12일「대중교통운영공사」의 보고에 따르면, 택시 및 버스의 경우 수일 이내에 연료가 고갈될 가능성이 크고 지하철 및 콜택시 서비스의 질이 점차 저하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www.transportforlondon.gov.uk/press_cl03.shtml)

8 도심진입차량 요금 징수 추진 (동경)

東京都는 최근 도심으로 진입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요금을 징수하는「Road Pricing」제도의 기본안을 마련했다. 규제대상이 되는 차량은 공공버스와 복지관련 차량을 제외한 전(全)차종이며, 요금징수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 都는 2003년 시행을 목표로 조례 제정을 서두르는 한편,「교통수요관리검토회의」에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讀賣新聞, 2. 1)

9 도시고속버스 운행속도 '고속화' (로스앤젤레스)

로스앤젤레스市는 '도시고속버스(Metro Rapid)'를 운행한 결과 버스운행시간을 최고 25%까지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市는 최근 몇 년간 버스의 평균운행속도가 시속 12마일에서 10마일로 떨어지고 버스승객들이 버스운행속도에 가장 큰 불만을 느낀다고 지적함에 따라, 브라질 쿠리티바市의 버스전략을 참조, 버스가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때에만 녹색신호를 연장하는 '버스우선신호시스템'과 함께 '도시고속버스'를 지난 6월 도입했다.

'버스우선신호시스템'은 교차로 200m 전방지점을 비롯해 도로 곳곳에 안테나를 매설, 버스의 운행속도와 접근시간을 파악해 이를 근거로 교차로의 녹색신호 시간을 최대 10초까지 연장하거나 단축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아울러 버스정류장 간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도시고속버스 뒷문에 '내리는 곳'이라는 표시를 크게 해 승하차가 원활토록 했다. 앞으로 市는 15~20개의 고속차선을 추가할 계획이다.

(www.nytimes.com/2000/09/14/technology/14HOWW.html)

10 장애인 및 노인용 '휠체어승강기 설치 택시' 도입 (동경)

東京都는 '복지거리 조성'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노인과 장애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리프트 설치 택시'의 보급을 적극추진하고 있다. 都 복지국은 노인과 장애인, 환자, 유아 동반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승강기설치 택시 120대를 도입키로 하고 9월 8일부터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都는 휠체어리프트 설치 택시 1대당 최고 100만엔까지, 회전시트 및 휠체어 수납장치설치 세단형 택시 1대당 20만엔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차량구입비(160만엔)를 제외한 장비설치비용의 1/2 수준이며, 택시사업자 1인당 최고 5대분까지 지급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택시사업자는 올해 4월 1일 이후 출고차량을 대상으로 휠체어 자동승강기 및 고정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이 차량에 '東京都 보조차량'이라는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0/08/20A8T700.HTM)

中小제조업체 공동지원사업 전개 (동경 / 오사카)

중소기업 밀집지역으로 알려진 東京都 墨田區·大田區, 大阪府 東大阪市, 兵庫縣 尼崎市 등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제조업 지원을 위한 공동사업에 착수했다. 공동사업 내용은 고등학생 또는 전문대학생의 인턴십, 숙련기술 고도화 및 전수 등의 인재양성사업과 정보기술관련 지원책 등이다. 아울러 이들 지방자치단체들은 각 자치단체별로 구축한 기업정보를 공유, 中小제조업체의 판로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日本經濟新聞, 9. 27)

레저·문화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의견 수렴 (홍콩)

홍콩 레저문화과(Leisure and Cultural Services Department)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소비자연락그룹(Customer Liaison Groups)」을 조직, 운용하고 있다. 이 모임은 레저·문화서비스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현재 10개 주요 지역단위별로 모임이 열리고 있으며, 앞으로 8개의 지역그룹이 더 생겨날 예정이다. 이외에도 홍콩에는 市에서 제공하는 레저·문화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용자 의견수렴 모임이 수시로 열리고 있다. 홍콩 레저문화과는 이 모임들이 레저·문화서비스 수준향상 및 시민들의 욕구충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www.info.gov.hk/gia/general/200007/13/0713208.htm)